2022.9.18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그리스도인이 꼭 알 것과 실현할 것을 알려준 70인 제자 요한
-복음으로 여는 요한일서-

창세기 1:1-3, 요한일서 1:1-10

정윤돈 목사님

*** 창1:1-3**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요일1:1-10**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영원토록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인간들이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문제를 해결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단메시지를 듣고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역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이를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과 인생까지 올인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내가 도전해야 할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내용에 나누고자 한다. 요한일서의 절대적인 목표는 '사랑'이다. 과거에는 우리 교회이름이 '오금중앙교회'였는데 '참사랑교회'로 바꾸었다. 여러분이 정말 참사랑을 갖기를 축원드린다. 오늘도 예비임직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하는데 불신자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믿음이 좋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을 보면서 사랑이 느껴져야 한다. 그럴 때 고급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었다고 한다. 우리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알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인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과학자, 교수들도 이것을 모른다. 성경은 진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진화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서두에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제 빛 되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어두움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요한일서는 성경말씀 중에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깊고, 심오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실천하기 어렵기도 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기초부터 믿음의 서밋인 서로 사랑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어린 막내였다. 복음을 가장 쉽게 정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일, 이, 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들인 꼭 알아야 할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과 현장에서 꼭 실천해야 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

1. 첫 번째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인 꼭 알아야 할 진리의 말씀들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다.

(1)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일서의 서두에서부터 명확히 알려 주고 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말씀하셨다. 그 빛은 우리가 보는 빛이 아니라 에너지이다.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에너지가 소비된다. 최초에 만들어진 에너지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태초부터 예수님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인 것이다. 요한일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라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즉,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귐과 누림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이단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가질 수 없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도 더불어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자기 죄도 해결할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를 바란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이다.

(2) 두 번째로 우리들이 죄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의 핵심적인 키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다. 빛 가운데로 나올 때 인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부부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야기하면 해결될 텐데, 변명하면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어요?'하면 되겠는가.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겸허해야 한다. 부부사이에서도 핑계만 대면 해결이 안 된다.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왔구나'했던 인물이 에스더이다. '내가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살려야지' 이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못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 한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죽으셨다. 우리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에 이르러야 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자백하고 인정

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면 된다.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 길이 총리가 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의 수준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학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회개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뿐 아니라 영원한 문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서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체질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체질이다. 이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3)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온 세상의 대언자이시고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우리를 돕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변호사, 대언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죄문제를 해결해주셨기 때문에 화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사실을 만방에 알려주는 것이 전도자이며 70인 제자이다.

(4) 네 번째로 잘못된 이단사상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지주의란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것 같았지만 사실 신비주의, 인본주의, 비윤리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혼합주의적인 단체였다. 이는 지금도 3단체와 여호와증인 등과 모든 이단들과 명상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5) 다음으로 요한일서는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제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 져서는 안된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 양보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 원수도 사랑했는데 나중에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들은 운명, 사주, 팔자, 재앙과 사탄의 역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정신문제, 가정문제, 후대문제, 지옥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만이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로 끝내고 결론내야 한다.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꽃 한 송이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피거나 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점을 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기 때문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미래는 정해져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가 정해져있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놀면 된다.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결론낸 사람은 성공자이다.

2. 두 번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실현해야 할 말씀들이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도전해야 할 미션을 주고 있다.

(1) 첫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믿음의 단계를 말하고 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 영적 성장단계에서 형제우애가 7단계이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2) 두 번째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선악과와 동일하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나 세상의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된다. 여러분이 빛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알아서 피해 다닌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3) 세 번째로 물질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일서는 형제사랑에 대하여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가정, 가문, 현장,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네 번째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하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을 느낄 때 전도는 쉽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결론으로 오늘도 요한일서에 담겨진 오력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영력이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말씀의 능력을 아는 만큼 영적인 힘도 더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락방, 지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강단메시지와 성경말씀을 잘 알려줘야 한다.
2. 지력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
3. 체력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체력도 선물로 주실 것이다.
4. 경제력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와 성도를 사랑한다면 경제력도 따라올 것이다.
5. 인력이다. 우리와 후대들이 교회와 전도에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사람을 살리는 복음엘리트들과의 만남이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셋팅하기 위해 사도 요한처럼 꼭 알아야 할 것들과 실천해야 할 것들에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5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한일서, 참사랑, 서로사랑에 대한 복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은혜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현장에서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더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이 이해되고 체질화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